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장세일 회장
(주)드림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대전 엑스포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꿈돌이랜드. 평일 오후의 놀이공원은 한산하기 그지없다. 주말의 인파로 한참을 기다려야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이런 날이라면 원 없이 탈 수 있으면, 놀이기구를 뒤로한 채 꿈돌이랜드 대표이사 집무실로 향했다. 장세일 대표이사, 오늘의 인터뷰 주인공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신임 회장이다.

“부끄럽습니다.”

신임 회장 선출 소감을 묻자 나온 첫마디다.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보는 아마추어 천문인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순수 아마추어입니다. 다음은 여기서 조금 벗어난 중급 아마추어,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추어로 보기 어려운, 뛰어난 실력을 가진 프로급 아마추어입니다. 저는 이 세 등급 중 정말 순수 아마추어입니다. 학회장 선출되고 수락 인사를 할 때 그랬습니다. 그 동안은 프로에 가까운 분들이 회장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순수 아마추어가 회장이 되었다고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회장이니 누구나 아마추어 천문인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순수 아마추어라고 하지만 장세일 회장의 아마추어 천문 활동 경력은 10년이 넘는다.

“누구나 태어나서 각자의 소임이 있듯이 제가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천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직접 학술 활동을 이끌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야는 뛰어난 분들이 많으니 걱정을 안 합니다. 제 능력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찾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장세일 회장은 아마추어 천문에 대한 자신의 무지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음 일화로 들려준다.

“얼마 전 학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사 분들과 지방 장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오고가는 말들 중에서 70% 이상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메시에 마라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세 가지 운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등산입니다. 취미 삼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산을 갑니다. 어제도 소백산을 갔다 왔는데, 안타깝게도 등산 코스가 소백산천문대 쪽으로 잡히지 않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마라톤입니다. 20km는 여러 번 뛰었고, 가장 길게는 30km까지 뛰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전 거인데요.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합니다. 마라톤이 취미인 장세일 회장에게 메시에 마라톤은 귀가 번쩍일만한 주제였다.

“야! 이제 나도 할말이 생겼다. 아마추어 천문인들도 마라톤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화에 끼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던진 말이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였죠.”

일순간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 꿈돌이랜드 정문 앞에 설치된 우주 이정표. 장세일 회장의 우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마라톤이 그 마라톤이 아니었던 것이다.

마라톤 코스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명성을 이용하고자 지명도 있는 인물을 단체장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간혹 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이러한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런 시선도 생각해봤습니다. 학회장으로 추대되었을 때 몇 번을 정중히 거절도 했고요. 저를 추대한 이유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실무형 회장이 필요했고, 거기에 적임자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조직이 구성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 바탕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을 진행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부회장으로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기업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조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임자로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천문학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경험이 있으니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세일 회장은 조직 정비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익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이던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회원들 연회비가 수익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여러 회원들과 많은 고민을 해야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또한 돈이 관계되는 일인만큼 조심해야할 부분도 많을 거고요. 적임자는 아니지만, 일단 맡은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꿈돌이랜드 대표이사인 장세일 회장은 1993년에 사원으로 입사해서 대표이사가 된 입지전적 이력을 갖고 있다.

“학회하고 인연을 갖은 건 1994년부터네요. 그해 처음으로 별 축제를 했습니다. 꿈돌이랜드에서만 20회 이상 별 축제를 했네요. 1996년부터는 제가 별 축제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으니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별 축제를 인연으로 2003년에 학회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별 축제는 수익 부분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공원을 홍보하고, 별을 통해 봉사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꿈돌이랜드 입구에는 눈에 익은 이정표가 하나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 뭔가 다르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우주 이정표이다. 또한 대형 회전 관람차인 폴라리스 타워에는 북극성을 사이에 두고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자리가 빛난다. 꿈돌이랜드가 표방하는 천문우주테마파크의 한 단면이다.

천문우주테마파크를 꿈꾼다

한 동안 대전에서 놀이공원으로 꿈돌이랜드가 유일했다. 그러나 2002년에 대전동물원이 생기면서 독점 구도가 깨졌다.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현상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100이라는 시장이 있으면 50, 50이 될 것 같지만, 반대로 22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측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선의의 경쟁하다보니까 후자의 결과가 나오더군요.”

일의 특성상 장세일 회장에게 1993년 입사 이후 주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가정에서는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빠인 그에게 이런 환경은 늘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

“백령도가 고향입니다. 어머니 홀로 계시죠. 섬에서 모셔 나오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그제 잘 안 되더군요. 지금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주 찾아 뵙지 못해 늘 죄송할 따름이죠. 주말 없이 살다보니 아내와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합니다. 그래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알아주니 고맙고, 제 자신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몇몇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자신의 몸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운동을 시작했다는 장세일 회장. 그는 요새 산을 오르며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한다.

“높은 산을 한 달음에 오르려하면 못 올라갑니다. 그저 매 순간 한 발짝, 한 발짝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한 발짝이 모여서 산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막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회장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장세일 회장의, 최선을 다하는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